

카메라 고발



아직도 '포천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영화아트빌 소공원조성공사가 지난 여름에 완공했다. 이곳에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포천시가 보호수로 지정했다. 그런데 아찔한 앞면지 칸판에는 아직도 '포천군수'를 '포천시장'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는 행정기관의 수처라고 생각한다. (사진 : 김영주송 포천신문 지문위원장)

“쌀과 라면으로 나눔의 정 실천”

관인의용소대 추석맞이 불우이웃 위문품 전달

관인의용소방대(대장 안운빈)는 지난 10일 추석을 맞이해 11개리의 불우이웃을 찾아 쌀 10kg과 라면 2박스를 각각 전달해 나눔의 정을 실천했다.



관인의용소방대는 지난 10일 추석을 맞이해 11개리의 불우이웃을 찾아 쌀 10kg과 라면 2박스를 각각 전달해 나눔의 정을 실천했다.

관인의용소방대에서는 3년 전부터 년1회씩 실시해 오던 행사를 설과 추석 년 2회 관인의용소방대는 지난 10일 추석을 맞이해 11개리의 불우이웃을 찾아 쌀 10kg과 라면 2박스를 각각 전달해 나눔의 정을 실천했다.

관인의용소방대는 지난 10일 추석을 맞이해 11개리의 불우이웃을 찾아 쌀 10kg과 라면 2박스를 각각 전달해 나눔의 정을 실천했다.

관심과 사랑의 나눔을 가져왔고 행사 당일 대원들은 바쁜 일상 가운데도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 관인의용소대원들은 “전달된 물품보다, 대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며 ‘가을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마음과 삶이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仲秋佳節 독거노인에 사랑을

바르게살기운동 동교4동 독거노인 위문품 전달

(사)바르게살기운동포천시협의회(협의회장 이병업)는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포천시 선단동 동교4동의 독거노인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추석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눴다.



(사)바르게살기운동포천시협의회는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포천시 선단동 동교4동의 독거노인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추석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눴다.

리안과 쌀(20kg) 등 위문품을 전달한 이날 행사는 이병업 회장, 지정옥 여성회장, 한창동 이사위원, 박영태 사무국장 및 바르게살기운동 선단동위원회 고순자 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교동 685-1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박명순(여·79), 박갑순(여·79), 강영철(남·76)에게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 관인의용소대원들은 “전달된 물품보다, 대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며 ‘가을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마음과 삶이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예비군 읍면동대장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돕는데 나서겠다” 다짐

포천시 14개 읍면동에 설치된 예비군중대 읍면동대장으로 구성된 예친회(회장 이만석)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그동안 회에서 일정금액을 모은 30만원을 분지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기탁했다.



예비군중대장의 모임 예친회 이만석 회장이 분지 주부명예기자단 박혜자 포천동지부장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3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15일 포천동 예비군중대 사무실에서 이만석 회장(참수면 예비군중대장)을 비롯해 포천동, 선단동, 신북면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지 주부명예기자단 포천동지부 박혜자 지부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또 주부명예기자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동전모으기 운동에 각 동대장들이 갖고 있던 동전을 돼지저금통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만석 예친회 회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날 행사에 관인의용소대원들은 “전달된 물품보다, 대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며 ‘가을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마음과 삶이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만석 예친회 회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단초, 학우 위한 작은사랑 큰 나눔 펼쳐

학부모, 교직원, 학생이 모은 성금으로 불우학우 도와



선단초등학교의 선단초 어머니회는 지난 16일 교강실에서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의 정성을 모은 성금으로 불우학우를 위한 장학증서 및 보호장구 전달식을 마련했다.

선단초등학교(교장 허효만)와 선단초 어머니회는 지난 14일 교강실에서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의 정성을 모은 성금으로 불우학우를 위한 장학증서 및 보호장구 전달식을 마련해 추석을 앞두고 이웃사랑의 훈훈함을 보였다.

또 선단초 교직원과 전교생들의 정성이 담긴 오십만원과 삼백구십오만원의 장학증서가 5학년 정모 학생에게 전해졌다.

허효만 교장은 “어머니회의 일일 찻집과, 교직원 및 학생들의 정성 어린 성금을 공평하게 나눠 도움을 주었다”며 “앞으로도 선단초는 지속적으로 불우 학생들을 위해 무료 급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우한 환경의 학우를 돕기 위해 교직원들과 학생, 학부모들이 마련한 장학금 및 보호장구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전달식은 허효만 교장, 운영철 교감, 장선에 어머니회장, 이영숙 총무와 수혜학생과 학부모 등 1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장선에 어머니회장은 “학부모의 노력으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지난 6월 22일 선단초어머니회 주최로 개최됐던 일일찻집의 수익금과 어머니

들이 뿌듯하다”며 “어머니들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항상 도움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전미나 학생회장은 “용돈을 모아 학우를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친구들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용기를 전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소방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 표창

포천소방서(서장 최덕기)는 지난 13일 소방서 내 서강실에서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6명에 대해 표창을 했다.

표창 대상자들은 소방행정 사한의 발전에 이바지한 소방공무원 3명과 성실한 생활로 의무소방대 내에서 모범이 되는 의무소방원 1명, 그리고 각종 소방 행사 및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에 크게 도움을 주는 의용소방대원 2명이었으며 상패 및 포상휴가가 주어졌다.

이날 행사는 정기적으로 모범 직원을 선정함으로써 근무성과 창출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직원들에게 근무동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포천소방서 인사담당자는 전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우리 동네를 말한 다 ④

화현면 명덕1리 이장 연제완

골프장 건설 절대 반대

포천시 화현면 명덕1리는 원 명덕으로 불렸으며, 명덕은천과 웨스턴밸리 등 유원지 등이 들어서 있으며, 과거 도요지가 많았던 곳이기도 하다.



연제완 이장 화현면 명덕1리

명덕1리는 90여세대 2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현재 전체 인구의 80%가 노인인구로서 노령화에 대한 대책과 영세민이 많아 복지의 발전 등 다양한 발전이 요구되는 곳이다.

이 마을의 대부분은 수도작 벼농사지만 1997년부터 몇몇 농가가 시작한 원예농업이 높은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 현재 원예농가는 47가구로 3천여명에서 농업이 이뤄지고 있다.

명덕1리의 이장으로서 주민 화합과 마을발전을 이어나가는 연제완(42) 이장에게 명덕1리의 현황 및 발전상, 당면현황 등에 대해 들었다.

연 이장은 새마을지도자 등을 거쳐 현재 화현면마을방범대 대장을 역임하고 있다.

연제완 이장을 중심으로 임연호 노인회장, 김영배 새마을지도자, 박정자 부녀회장, 김영학 총무, 3개반 반장, 청년회, 개발위원회, 상호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5명으로 구성된 개발위원회는 마을임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청년회와 상호회는 명덕1리와 3리가 함께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최근 명덕1리는 일동과 이동으로 집중되는 관광객의 발길을 잡기 위한 휴식공간을 추진 중이다.

연 이장은 “이장에 취임할 때 마을회관에서 명덕2리 진입로 직전까지 살구나무를 3km를 식재했는데, 이를 토대로 마을에 대한 이미지 부각과 지나는 관광객들이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덕1리에서는 예로부터 음력 3월과 9월 ‘오양골’에서 제각으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연 이장은 “마을 주민들이 심시일만 정성을 모아 소를 제물로 산신제를 지내고 있는데, 예전엔 소를 통째로 잡아 제물로 썼지만, 최근에는 부위별로 준비해 제물로 사용한다”며 “이 산신제는 3리와 함께 구성된 상호회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덕1리에서 산신제를 지내게 된 이유는 마을에 화재가 많이 발생해 산신의 화를 자제시켜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서이다. 최근 명덕1리 주민들은 예정된 골프장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생계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덕1리 주민들은 90년대 중반부터 논의됐던 골프장 건설사업이 지난해 말부터 급속히 토지를 매입하는 등 신속한 추진에 당황했으며, 무엇보다도 명덕1리의 상류지점에 위치하고 청정지역인 마을이 농약 등으로 오염될 것을 우려했다.

연 이장은 “주민들은 마을과 인근에 온천과 생수공장 등의 오염과 폭우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수해 및 산사태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실제로 몇 년전 산에 입도가 났을때 수해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름다운 화현을 만들어나가는 취지로 관광과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사업을 계획 중인데 이에 반대하는 일거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연 이장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골프장 건설은 막아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연 이장은 지역의 기업과 주민 화합하며 지내길 원한다.

“지역에 입주한 업체들이 지역주민 고용에 인색한 편”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류노동력 활용차원에서 지역 기업체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연 이장은 “시골의 정취가 물신 물어나는 고장인 명덕1리 골프장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의 입주보다는 청정지역의 관광지로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포천시의 적극적이고 계획적 지역 개발 계획을 촉구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고객은 가슴으로, 안전은 지식으로”

산업재해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당국에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어떤 사고를 신고하나?
 - 사망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 언제 신고하여야 하나?
 - 산재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나?
 -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 산재보상을 위한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가지중 한가지만 하면 됨)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면 됩니다.



- 자진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종전의 년 1회에서 금년부터 년 4회로 늘렸습니다.
 - 자진신고기간은 매분기 마지막 달 (3월, 6월, 9월, 12월)의 1일~7일 사이입니다.
-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미신고로 인한 사법처리가능 유보됩니다.